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332호 [투게 제25110호] 주제 104 (2015)년 11월 28일 (토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사설 선군조선의 영웅적기상을 더욱 힘있게 떨치며 계속혁신, 계속전진하자

위대한 어머니당, 조선로동당창건 70돐을 강성번영하는 선군조선의 혁명적대경사로 뜻깊게 경축한 내 나라에 애국충정의 불길, 창조와 혁신의 불바람이 더욱 세차게 나래치고있다.

승리의 경축광장에서 우리 인민을 위대한 인민, 조선로동당의 들도 없는 지지자, 조연자, 방조자로 그 존엄과 지위를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워주신 것에 하는 김정은동지의 력사적인 연설과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회소에 관한 당중앙위원회 제7차대회 회소에 관한 당중앙위원회 제7차대회를 맞이하는것은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있어서 크나큰 경사이고 더없는 영광이다.

3대혁명의 기치를 높이 들고 더 높은 목표를 향하여 계속혁신, 계속전진해나가는것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자랑스러운 투쟁기풍이며 투쟁본태이다. 백두의 칼바람에 뜻을 달고 10월의 대추진장을 향하여 세월을 주름잡으며 집중같이 달려온 그 기세를 더욱더 고조시켜 당 제7차대회를 높은 정치적의의와 전례없는 로력적 성과로 맞이하는것이 천만군민의 드림일 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억척불변의 혁명신념과 필승의 기상을 안고 백두의 눈보라바람 폭풍쳐 내달리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앞길을 가로막을 힘은 이 세상에 없으며 최후의 승리는 반드시 우리의것입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신년사와 당중앙위원회, 당중앙군사위원회 공동주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정신을 높이 받들고 년초부터 승리의 신심드높이 총공격을 과감히 벌려왔다. 조선로동당창건 70돐과 조국해방 70돐을 혁명적대경사로 빛내이기 위한 천만군민의 창조적의의와 영웅적투쟁, 불타는 애국심을 의하여 위엄을 흐르는 분과 초는 그대로 기적과 의력으로 수놓아지고 우리 조국은 아침과 저녁이 다르고 어제와 오늘이 다르게 비장히 놀라온 속도로 전진되고있다.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 미래과학자거리, 과학기술전당을 비롯한 로동당사회의 기념비적창조물들은 당의 결심이러면 산악도 때칠고 바다도 메우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무한한 정신력과 결사판전의 전투적기질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10월의 경축광장에 차넘친 천만군민의 고결한 충정과 필승의 기상을 통하여

당의 혁명사상과 백두의 칼바람을 전진의 원동력으로 하고 존엄높은 붉은 당기를 뜻으로 삼아 휘황한 미래를 향하여 폭풍쳐 내달리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투쟁속도를 지연시킬 힘은 이 세상에 없다는것이 남김없이 확증되었다.

다음해에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창조자인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회를 가하여 당 제7차대회를 우리 당력사에 길이 남을 영광으로 기록하고, 창조와 혁신의 불바람이 더욱 세차게 나래치고있다.

다음해에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창조자인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회를 가하여 당 제7차대회를 우리 당력사에 길이 남을 영광으로 기록하고, 창조와 혁신의 불바람이 더욱 세차게 나래치고있다.

우리 인민군대는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생명선으로 삼고 로동당의 붉은 기발을 제일선으로 높이 들고나가는 수명의 군대, 당의 군대이다. 당의 전투명령을 받으면 《달았습다.》의 힘찬 대답과 함께 일시에 대고조진격을 타고있고 폭풍처럼, 화약에 불이 달린것처럼 전격적으로, 립체적으로, 진공적으로 관철해나가는 진위대오가 바로 우리 인민군대이다. 최고사령관이 가 떨쳐 버리고 혁명군대가 힘차게 울려대는 곳에서는 무에서 유가 창조되고 10년이 아니라 1년이면 강산이 변하는 천지개벽이 일어나고있다. 오를 통해 전역에서 인민군대 수산부문의 고기배들이 높이 울리고있는 만산의 배고동소리는 사회의 수산부문에 있어 고무적인 힘을 안겨주고 분발시키는 원동력으로 되고있다. 당의 명령지시에 대한 절대적, 무조건적 정진, 무비의 용감함과 맹렬한 돌진력, 결사판전의 투쟁기풍, 이것이 백두산혁명군대의 고유한 기질이다.

지금 미래와 그 추후세력들은 우리의 전진을 가로막으려고 악랄하게 책동하고있지만 우리 혁명의 시계초침은 인민군대의 발걸음속도를 따라 힘차게 돌고있다. 온 나라가 산악이 막아도 담보가 없고 대적이 밀려와도 후퇴가 없는 인민군대의 용감무쌍한 공격정신, 공격속도에 발맞추어갈 때 오늘의 하루하루는 보통의 백날, 찬날과도

대별할수 없는 기적과 혁신의 나날들로 이어지고 백두산대국의 휘황한 미래는 더 빨리 앞당겨지게 될것이다.

오늘의 총진군에서 계속혁신, 계속전진의 강력한 추진력은 백두전구에서 창조된 선군시대의 청년돌격정신이다.

조선로동당창건 70돐을 맞으며 창건대 기념비로 일떠선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는 당의 호소를 심하게 조아먹고 만사를 제치고 달려나가는 끝바로의 정진, 작렬하는 폭약과 같이 일격에 산도 허물고 강줄기도 막는 드세찬 공격정신, 형언할수 없는 약조된 선군시대의 청년돌격정신이다.

조선로동당창건 70돐을 맞으며 창건대 기념비로 일떠선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는 당의 호소를 심하게 조아먹고 만사를 제치고 달려나가는 끝바로의 정진, 작렬하는 폭약과 같이 일격에 산도 허물고 강줄기도 막는 드세찬 공격정신, 형언할수 없는 약조된 선군시대의 청년돌격정신이다.

조선로동당창건 70돐을 맞으며 창건대 기념비로 일떠선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는 당의 호소를 심하게 조아먹고 만사를 제치고 달려나가는 끝바로의 정진, 작렬하는 폭약과 같이 일격에 산도 허물고 강줄기도 막는 드세찬 공격정신, 형언할수 없는 약조된 선군시대의 청년돌격정신이다.

조선로동당창건 70돐을 맞으며 창건대 기념비로 일떠선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는 당의 호소를 심하게 조아먹고 만사를 제치고 달려나가는 끝바로의 정진, 작렬하는 폭약과 같이 일격에 산도 허물고 강줄기도 막는 드세찬 공격정신, 형언할수 없는 약조된 선군시대의 청년돌격정신이다.

조선로동당창건 70돐을 맞으며 창건대 기념비로 일떠선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는 당의 호소를 심하게 조아먹고 만사를 제치고 달려나가는 끝바로의 정진, 작렬하는 폭약과 같이 일격에 산도 허물고 강줄기도 막는 드세찬 공격정신, 형언할수 없는 약조된 선군시대의 청년돌격정신이다.

조선로동당창건 70돐을 맞으며 창건대 기념비로 일떠선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는 당의 호소를 심하게 조아먹고 만사를 제치고 달려나가는 끝바로의 정진, 작렬하는 폭약과 같이 일격에 산도 허물고 강줄기도 막는 드세찬 공격정신, 형언할수 없는 약조된 선군시대의 청년돌격정신이다.

백두산으로》를 더욱 힘차게 부르며 백두밀림에 차넘치던 자력갱생의 혁명정신과 혁명적관망주의로 곁싸이는 시련과 난관을 맞받아 뚫고나가야 한다. 결렬한 자주정신과 창조적투쟁으로 오늘의 장엄하고 보람찬 진군에서 영예로운 승리가 되려는 일념으로 심장을 불태우며 맹렬한 공격전을 벌려나가야 한다.

군민대단결, 군민협동투쟁의 위력을 더 높이 떨쳐나가야 한다.

우리의 일심단결, 군민대단결은 조국사수, 혁명보위의 최강의 무기이며 강성국가건설의 원동력이다.

짧은 기간에 미래과학자거리, 과학기술전당건설과 같은 방대한 공사를 훌륭히 완공하고 라선시의 큰물피해도 단숨에 가신 일로써 당에서 요구하는 높이에서 완전무결하게 수행해나가야 한다.

일군들이 혁명의 지휘선원으로서 책임과 본분을 다하여야 한다.

일군들의 어깨에 당정책의 운명이 놓여있고 일군들의 역할에 따라 총진군대의 공격속도가 좌우된다. 모든 일군들은 시대와 혁명앞에 지닌 무거운 사명감을 깊이 자각하고 한몸이 그대로 화약이 되고 불씨가 되어 자기 부근, 자기 단위에서 비약의 불꽃을 세계에 지펴올려야 한다. 일군들은 황금해의 새 역사를 창조하고있는 인민군대 수산부문의 일군들처럼 령도자를 높은 실적으로 만드는 참된 혁명전우로 삼을 빛내야 한다. 《나를 따라 앞으로!》의 구령을 웨치면서 전진의 돌파구를 열어제끼는 투쟁의 기수, 아전형의 지휘성원이 되어야 한다. 오늘의 현실에 발을 붙이고 세계를 헤쳐나오려는 모든 사업을 새롭게 착상하고 혁신적으로, 과학적으로 전개해나가며 수입병을 철저히 뿌리뽑고 자력갱생의 혁명적기풍을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 항일유적대적으로 배양을 매고 계속속도에 들어가 기틀생애, 희생생애를 맡으며 대중을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호전으로 총력기, 총돌격

시켜야 한다. 우리 당의 인민편을 확고한 신조로, 넓으로 간직하고 인민의 리익과 편익을 최우선, 절대시하며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하는것을 사업과 생활의 철칙으로 삼아야 한다.

당조직들의 역할을 비상히 높여나가야 한다.

창조와 혁신의 가장 큰 예비, 기적창조의 근본요소는 대중의 정진력을 최대한으로 발동시키는데 있다. 각종 당조직들은 사람들의 심장에 혁명적수평면과 열렬한 조국애, 불굴의 신념과 투철한 계급의식, 고상한 도덕관을 억척같이 쏘아박는 사상의 정제, 마치고 같은 5대교양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힘있게 벌려 강성국가건설의 전투장마다에서 거세한 비약의 폭풍을 일으켜 나가야 한다. 사상사업을 자기 단위의 투쟁과 실정에 맞게 참신하고 생기발랄하게 진행하며 모든 선진선동력량과 수단을 총동원하여 사상공세를 집중적으로, 편속적으로, 실효성있게 벌려나감으로써 온 나라에 혁명적열정과 필승의 기상이 짝 차넘치게 하여야 한다. 호소성이 강하고 내용이 명백하며 전투적인 인민군대의 화선식정치사업을 따라배워 대중의 심장에 불을 달고 그들의 정진력을 총폭발시켜나가야 한다.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3대혁명붉은기정운운동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일으키며 최후 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총공격을 힘있게 다그쳐나가야 한다.

당조직들은 청년정신을 전격적으로신으로 내세우고있는 당의 뜻을 받들어 청년들을 당의 혁명위업, 주체혁명위업수행의 맹장도 든든히 키워나가야 한다. 청년들이 백옥같은 충정과 순결한 향기를 지니고 선군혁명의 진위투쟁당에 언제나 당을 따라 끝바로,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 나라 청년운동의 귀중한 재보인 선군시대의 청년돌격정신을 따라배우기 위한 사업을 강화하여 누구나 인생에 한번밖에 없는 귀중한 청년시절을 자랑찬 창조물과 함께 구지한다, 멋있게 수놓아도록 하여야 한다. 창조물 들들은 그 어디서나 청년관으로 흥성이도록 하여 온 나라에 악동하는 젊음이 나래치게 하고 전진하는 대오에 생기와 활력이 넘쳐나도록 하여야 한다.

모든 당조직들과 근로자들은 선군조선의 기상이 응축되어있는 혁명의 성산 백두산에 삶의 새로운 새를 세우고 강성국화건설의 모든 전역에서 새로운 영웅시화를 끊임없이 창조해나가야 한다. 죽어도 살아도 내 나라, 내 민족을 위하여 만년을 헤택하며 싸워 승리한 항일혁명선열들의 정신과 신념과 불굴의 기개가 오늘의 총진군대오에 그대로 맥맥하여야 한다. 누구나 노래 《가리라

승리자의 기쁨이 높고 대적군수들을 비장히 복이자

전례없는 혁신창조로 적극 고무추동

황해북도당위원회에서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우리 당력사에 빛내이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특히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계속 분발하여 총진군의 앞장에서 전격적으로 힘차게 열어나가도록 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조직들은 해당 단위의 정치적참모부이며 그 기본 임무는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조직동원하여 당의 로선과 정책을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는것입니다.»

당위원회 일군들부터 양양된 기세를 뽐내며 이미 대중속에 들어가 화선식정치사업에 보타 진공적으로 벌려면서 애매당조직들을 단계별목표로 높이 세우고 그것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도록

황해북도당위원회에서

황해북도당위원회에서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우리 당력사에 빛내이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짧은 기간에 1000정보의 흙갈이 진행

당위원회에서는 모든 농촌조직들을 발동하여 올해 농사를 빠른 시일에 계속하고 다음해 농사차비에 모든 힘을 총집중시키도록 조직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당위원회는 지도도면에 도에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은정속에 마련된 정방산중학식로 공장과 현대적인 폐지공장, 닭공장, 비료공장,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하는 공장들에서 생산을 정상화할수 있게 근로보장사업에도 깊은 관심을 돌리고있다.

당장전 일흔흔을 맞으며 양양대중의 혁명적열의를 더욱 고조시켜 올해전투를 빛나게 결승하는것과 함께 당 제7차대회를 우리 당력사에 특기할 혁명의 최전선으로 맞이하려는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하여 도의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대고조의 불길이 더욱 세차게 타고있고있다.

특파기자 김 천 일

결충, 곡면유리생산공정 새로 확립

곡면유리를 생산하기 위한 기술준비 및 시험생산을 다그쳐 단번 성공으로 첫 시제품을 생산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공장에서는 생필직장을 우리 조국식유리로 각종 가구들과 생활필수품들도 다량생산하고있다.

직장에서는 다양하면서도 독특한 문양과 장식을 새긴 유리로 장식장, 서류장, 밥상, 앞치마와 같은 각종 가구를 생산하기 위한 투쟁에 불을 걸고 제품의 가치를 높이고 그 질을 높이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있다.

대안천선유리공장에서 질 좋은 각종 유리제품들과 생활필수품들이 생산됨으로써 날로 늘어나는 인민들의 수요를 보다 원만히 충족시키기 비롯된다.

특파기자 주 창 선

대안천선유리공장에서

새로 꾸민 곡면유리생산공정에서 나오는 제품들은 각이한 건설대상들과 운수기재들의 요구에 맞게 일의 규격과 구부러짐도를 원만히 보장할수 있다. 또한 제품가공과정에서 우리가 강질되어 수오자들의 호평을 받고있다.

공장에서 결충유리생산공정과 공정을 한달사이에 일떠세우며 곡면유리생산공정을 새로 꾸민것은 함으로 자랑할만한 성과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공장을 현지지도하시면서 질 좋은 유리제품을 많이 생산하는것과 함께 강질유리, 호린유리들과 같은 새로운 유리제품들을 더 많이 개발해내어 건국한

대안천선유리생산공정 새로 확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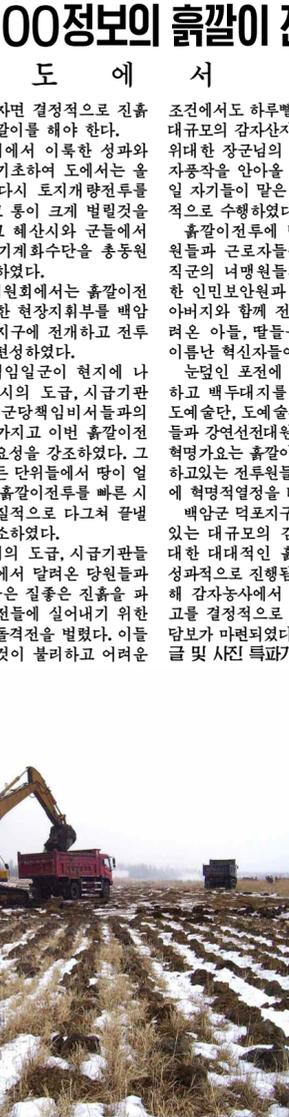
대안천선유리생산공정에서 새로 꾸민 곡면유리생산공정에서 나오는 제품들은 각이한 건설대상들과 운수기재들의 요구에 맞게 일의 규격과 구부러짐도를 원만히 보장할수 있다. 또한 제품가공과정에서 우리가 강질되어 수오자들의 호평을 받고있다.

대안천선유리공장에서

대안천선유리공장에서 질 좋은 각종 유리제품들과 생활필수품들이 생산됨으로써 날로 늘어나는 인민들의 수요를 보다 원만히 충족시키기 비롯된다.

대안천선유리공장에서

대안천선유리공장에서 질 좋은 각종 유리제품들과 생활필수품들이 생산됨으로써 날로 늘어나는 인민들의 수요를 보다 원만히 충족시키기 비롯된다.



조국의 미래를 위해 뿌리가 되고 밑거름이 되어

오늘 우리 당이 바라는 참된 교육자들이란 어떤 사람들인가

성스러운 교단에 삶의 좌표를 정하고 후대들을 훌륭하게 키우기 위해 변함없는 한 모습으로 향심을 묵묵히 바쳐가는 교육자들에서 우리는 당이 바라는 우리 시대 교육자들의 참모습을 본다.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교원은 학생들을 미래의 훌륭한 역군으로 키우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지혜와 재능을 다 바쳐 일하여야 합니다.》

교육사업은 조국의 미래를 위한 만민대계의 애국사업이다. 이것은 한순간에 빛이 나는 그런 일이 아니다.

농사꾼이 온 한해동안 땅과 노력을 바쳐 풍만한 열매를 거둔다면 교육자는 새 세대들을 위해 깎아서 수년간의 지성을 바쳐야 하고 제자들의 면 앞날까지도 책임져야 하는 의무를 결머지고있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는 후대들을 나라의 역군으로 키우는 교육사업을 민족의 흥망과 혁명의 장래운명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혁명사업으로 보시고 언제나 국사증의 국사로 내세우시였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고귀한 뜻을 이어가시는 것에하는 원수님의 교육중시, 애국중시 사상은 오늘 그 건인력과 감화력으로 하여 천만군민의 심장을 뜨겁게 울려주었다.

그 숭고한 뜻을 받들고 세계 교육혁명의 불길속에서 경애하는 원수님과 뜻과 발걸음을 같이하며 조국의 미래를 위해 뿌리가 되고 밑거름이 되어 자기의 힘과 열정, 지혜를 깡그리 바쳐가는 교육자들

는 그 얼마인가.

강서구역 운봉고급중학교 교장 윤영철동무는 지난 40여 년동안 후대교육사업에 자신의 모든것을 바쳐온 성실한 교육자이다.

20여년전 교장사업을 맡게 된 윤영철동무는 9등이나 되는 낡은 단층교사들을 대담하게 허물고 새 교사를 건설하는데 달려들었다.

많은 자금과 힘이 드는 방대한 일이었으나 그는 주저하지 않았다.

후대들을 위한 일에서는 하늘의 별이라도 따와야 한다는 확고한 관점을 지니고 그는 교직원들과 힘과 열정을 합쳐 이악하게 노력하였다.

그러하여 자체의 힘으로 세멘트를 비롯한 많은 자재를 확보하였다. 그리고 교직원력량만을 가지고 줄기찬 전투를 벌여 3층교사를 새로 번듯하게 건설하였다. 이어 그는 교원들을 위한 살림집건설도 힘있게 내밀어 집 때문에 불편을 겪고있던 14명의 교원들이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게 하였다.

교수교양사업을 위해 자체로 마련한 컴퓨터와 텔레비전수상기, 녹화기들에도, 파장안에 반영된 실험실습을 원만히 진행 하도록 하기 위해 평양시를 비롯한 여러 곳을 다니면서 구입한 실험기구와 시약, 박제품, 식물표본 등에도 교육사업을 대하는 윤영철동무의 관점과 열정, 그로부터 발휘되는 그의 애국과 책임심이 력력히 비쳐 있다.

은실도 건설하여 자체로 교원들의 생활향상을 위한 든든한 물질적근거를 갖춘것에 윤영철동무의 주안점이었던 14명들을 떠나 생각할 수 없다.

이런 교육자들 가운데는

초산군 편포고급중학교 송계분교 교원 지백세동무도 있다.

지난 40년동안 산골분교교원으로 사업하면서 그는 언제나 학생들을 위해 마음을 기울여왔다.

30년동안 그는 비정지에서 생산한 콩으로 학생들에게 매일 콩우유를 먹이고 학교주변에 과일나무들도 많이 심어 수확한 과일을 학생들에게 안겨주기도 하였다. 그리고 자기 집에서 학생들을 위해 점심식사도 보장해 주곤 하였다.

지난 기간 이렇게 수십명의 학생들을 친부모의 입성으로 돌보아준 그의 아름다운 소행은 사람들의 가슴을 뜨겁게 울려주었다.

그뿐이 아니다. 지난해 학교 후원단체들과의 관계에 학교 건설자재들을 해결하여 분교를 보수하고 교실마다 액정텔레비전과 녹화기, 태양발전기판과 축전지를 갖추어놓아 분교의 면모를 일신시켜놓았다.

제명군 편포고급중학교 소학반 교원 김홍련동무는 후대교육사업에 열정을 바쳐 아버지와 고인의 행군시기 고향에서 순직된 남편의 묘까지 찾쳐 지난 40여년간 깨끗한 향심을 바쳐 오고있는 참된 교육자이다.

부모없는 학생을 9년동안 자기 집에서 키우면서 언어머니의 심정으로 따뜻한 돌봐주고 학생들을 위해 학용품 등을 마련해 준 사실에 누가 감동을 금치 못하고있다.

가을물이 불어나 학교에 등교하지 못하는 한 학생을 10여 일동안이나 자기 직접 자전거에 태워 등교시키고 가정사정도 어려울수록 그는 자기 집에서 1년동안 숙식시키면서 극진히 돌보아준것을 비롯하여 김홍련동무가 조국의 미래를 위

해 바친 향심과 사랑은 참으로 뜨거웠었다.

부모없는 아이들을 비롯하여 여러명의 학생들이 그의 친부모와도 같은 사랑과 정속에 우리 당의 후대사명을 심장에 새겨며 헌정의 그늘도 없이 성장하였다.

지난 수년간 그가 맡은 18개의 학급이 모두 영예의 붉은기학급으로 자랑될것을 통해서도 새 세대들을 위해 바친 그의 지극한 정성을 잘 알 수 있다.

순천시 신리고급중학교 소학반 교원 리경화동무는 때를 쓰지 못하는 한 학생을 2년동안 하루와 같이 업고다니며 공부시키는 아름다운 소행을 발표하였다.

그 학생이 의족을 한 후에도 불편이 없도록 보살피주면서 해마다 명절과 생일날에는 식료품과 학용품 등을 준비해가지고 집에 찾아가 그를 고무해 주며 공부할 잘하도록 돌보아주어왔다.

뿐만아니라 가정사정으로 하여 우울하게 지내던 학생을 위해 학용품 등도 마련해주고 극진히 돌봐주면서 온 나라 어디까지 돌보아주는 어머니가 되어서 갈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깨끗한 충정을 간직하도록 이끌 어주었다.

그 학생이 매일 아침 학교에 모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영상 작품을 더 밝고 정중히 모시는 사업에 뜨거운 지성을 바치면서 우수한 성적으로 소학반을 졸업하고 자랐을 때 학부형들은 우리 시대 참된 교육자의 모습앞서 깊은 감동을 금치 못하고있다.

냉변군 냉변고급중학교 교원 송영순동무도 지난 27년동안

나가 알아주진않던 그가 묵묵히 헌신해온 지난 18년간의 교원생활에는 이렇게 교육자로서의 그의 깨끗한 향심이 뜨겁게 새겨져있다.

김형직군 김형직고급중학교 교원 최명희동무도 학생들을 친부모의 심정으로 돌봐주 고있다.

몇해전 다리를 상하여 등교하지 못하고있던 한 학생의 학과실력을 높여주기 위해 매일 그의 집에 찾아가 학과지도를 해주 고 지난해에는 입원치료를 받고있는 그에게 피가 우르디라는 것을 알고 자기의 피를 서슴 없이 바쳤다.

또한 부모없는 2명의 학생들을 맡아 매일 학습지도를 해주면서 학업을 치밀하게 이끌어 주 어주어 학생을 최우등으로 키웠다.

운동복과 계절에 따르는 옷들도 마련해주며 그들이 언제나 명랑하게 생활하도록 이끌어준 그의 가슴은 오늘도 후대들을 우리 당이 바라는 앞날의 역군으로 키워갈 교육자의 참된 사명감으로 불타고있다.

당이 맡겨준 가장 영예롭고 보람찬 초소에 섰다는 높은 자 각과 숭고한 후대관을 지니고 변함없는 한 모습으로 교단을 지키는 이런 교육자들이야말로 우리 당이 바라는 참된 교육전 사들이다.

교육사업은 향심과 헌신, 애국 이라고 하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심장에, 뼈에 새기고 후대교육사업에 모든것을 바쳐 사회주의건설로, 로동당 만세소리를 더 높이 울려가는 이런 교육자들이 있어 경애하는 원수님이 아버지로 높이 모시고 하늘의 대가정을 이룬 우리의 사회주의는 굳건하며 사회주의를 위해 헌신하는 젊은이들은 더욱 앞당겨질것이다.

본사기자 공로혁

사리원 과수농장에서

력사적인 당 제 7차대회가 열 리는 다음에도 이어 파일내 풍을 안아오기 위해 사리원과수 농장에서는 그루당 근 100kg

의 덧거름추기도 지난 시기 보다 훨씬 앞당겨 끝내고 가지자르기과 열매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도 빈틈없이 세워 놓았다. 이것을 보며 농장의 종업원들모두가 다음해의 과일생산도 문제없을것이라고 하였지만 일꾼들의 생각은 달랐다.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과일생산을 늘리는 비결의 하나는 병충해구 제사업을 잘하는데 있습니다.》

일꾼들은 이미 이룩한 성과에 이어 련속공격, 계속전진, 계속혁신해나갈 마음의 신들매를 더 박박 조이고 지난 시기 과일생산에서 얻은 경험과 교훈을 구체적으로 분석해보며 농천것이 없는가를 다시금 따져보았다. 이 과정에 어느해인가 병충해막이를 소홀히 하여 적지 않은 포도송이를 덧없이 잃어버렸던 사실이 되새겨졌다.

사실 포도농장에서는 4월에 진행되는 농약뿌리기가 그 해의 생산성과를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만일 이 사업을 놓쳐 포도 나무들이 병충해를 받으면 그 후에 아무리 많은 농약을 뿌려주면서 영양관리를 집중적으로 해도 품들이 보람이 없게 되었다. 그러므로 포도 농장에서는 자체로 만든 효능높은 대용농약들을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한 하였고있다. 그런데 그 해에는 늘 해오던 사업이라고 하여 필요한 원료들을 전례에 미러 마련해놓지 못했다. 결국 해당 시기까지 대용농약생산에 미처 따라세우지 못해 병충해막이에

앞질러 마칠한 과일생산의 참모

힘을써서 그해의 포도생산이 적지 않은 지장을 받게 되었던 것이다.

그해의 일을 자책속에 돌켜 보며 일꾼들은 과일생산의 또 하나의 중요방도가 될 것인 병충해막이대책에 이 다는것을 더욱 깊이 자각하게 되었다.

이로부터 대용농약생산에 지장이 없도록 100여의 소석회를 비롯한 각종 원료들을 짧은 기간에 확보해놓 아야 한다는 목표가 세워지게 되었다.

획지 않은 과업이었다. 그러나 농장에 주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언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할수 있는가를 따지기 전에 무조건 해야 한다는 비사한 각오와 책임감을 가지고 무거운 짐을 스스로 맡아진 일꾼들은 원료 확보를 위해 밤이 깊도록 뛰었다. 농장의 종업원들모두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호전에서 백옥같은 애국충정을 다해나갈 불같은 일념을 안고 대용농약생산을 위해 헌신의 구슬땀을 아낌없이 바치자였다. 결과 필요한 대용농약들의 생산을 계획된 날까지 결속할수 있는 전 말이 마련되게 되었다.

뿐만아니라 병충해용제의 발생시기와 그 피해막이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요구, 농약뿌리기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문제, 필요한 작업용구와 련 등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는 매일 3차이상의 기술전 습이 어김없이 진행되고있어 다음해의 과일생산이 더욱 믿음직 하게 담보되고있다.

당의 인민중심, 인민사랑의 뜻과 정을 심장에 가득 채우고 과일생산의 밝은 전망에 마련해 가고있는 이곳 일꾼들과 종업원들의 다음해성과가 기대된다.

본사기자 김성일

대지를 진감하는 장엄한 노래포성

피바다가극단, 국립교예단, 국립연극단의 예술인들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경제선동은 대중의 혁명적열의를 불러일으켜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게 하는 위력한 수단입니다.》

조선로동당 제 7차대회를 전례없는 로력적성과로 맞이 하기 위한 총동원전에 한사 랫같이 떨쳐나선 농업근로자들의 양양된 열의를 더욱 고무시키며 화신적경제선동의 북소리가 대지를 진감하고있다.

지난 2일 분계연선도시 개성명에서 경제선동의 첫발을 올린 피바다가극단과 국립교예단, 국립연극단의 예술인들로 구성된 중앙예술인 경제선동대가 울려 퍼지는 전투를 승리로 이끄는 위력한 혁명적열의를 힘있게 벌여지고 있는 혁명전열마다에서 사상공세의 드세한 명종포성을 련속 울리고있다.

개성시와 금천군, 평산군과 봉산군을 비롯한 수많은 곳마다에서 이들의 공연은 농장원들과 관람자들의 대결 찬을 받으며 성황리에 진행 되었다.

피바다가극단의 손철남, 고정주, 전춘철, 박진옥, 김해우, 현수현동무들이 부르는 혼성 4중창 《인민이 사랑하는 우리 명도자》, 남성독창 《내 심장의 목소리》, 여성 3중창 《죽어도 혁명명인 버리지 말자》를 비롯한 시대의 명곡들과 국립연극단의 박철영, 리현희동무들이 출연하는 제단, 국립교예단의 김봉일, 리명동무들의 오솔 등 다채로운 공연종목들은 시종일관 대중의 열렬한 감응을 불러일으켰다.

흥겨운 민요풍의 노래장단에 맞추어 출연자와 관객이 하나가 되어 춤판이 펼쳐지고 하고 신비스러운 오솔의 세계에 침투하여 숨을 죽이기도 하는 이들의 공연은 마음과 감성을 격동시키는 선동과 함창대목에서 절정을 이루었다.

한형생 인민을 위한 길에 모든것을 다 바쳐 오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높은 뜻을 이어 인민을 위한 열사 복부의 자욱을 새기며 불면불휴의 로고를 바쳐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명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나가는 열렬한 호소는 대중의 심장을 울려주고 그 형상들은 높이기 위해 달리는 배스 안에서 서색과 토른을 거듭하면서 엄습하는 창작전투를 벌여온 이들이었다.

농장원들을 도와 일도 함께 하면서 격심없는 선동활동도 하고 때로는 고열도 몸이 불편한 속에서도 공연을 보장한 경제선동의 나날들은 대중의 심장에 비약의 불길을 지어주는 동시에 시대앞에 진인 자신들의 의무를 더욱 굳게 가 당하게 한 나날이었다.

경제선동의 나날에도 전쟁 로명들의 가정을 찾아 노래도 불러주고 그들의 생활을 친자식의 심정으로 성심성의 돌봐주고 전세대대에 지냈던 높은 정신세계에 자신들을 언제나 비추어보며 투쟁해온 이들이기에 이들이 부르는 노래는 시대의 승결과 박동이 그대로 맥박치는 전투적이며 기백있는 노래로 대중과 호흡을 같이할수 있었다.

대중이 터치는 열렬한 박수 갈채가 드높은 생산적양양에 로 이어지고 자신들이 부르는 한편연환의 노래가 대중의 심장에 불을 지피는 한발한발의 명종포화라는 오직 한형생으로 가슴을 불태운 이들에게 있어서 경제선동의 날과 날들이는 그대로 불비축어지는 전투장들마다에서 필승의 혁명군 가로 인민공용사들의 가슴마다에 승리의 신성과 용명을 안겨주며 전하의 예술인들이 걸던 중군길이었다.

사회주의수호전의 전초선, 사회주의경제강국건설의 수타격명향인 농업전선에서 대중의 심장에 불을 달며 울려 퍼지는 경제선동의 장엄한 노래소리는 배의 혁명정신, 배우의 칼바람정신으로 우리 당 제 7차대회를 전례없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하기 위하여 총동원전에 떨쳐나선 농업근로자들의 자랑스런 승전 포성으로 이어질것이다.

김성민



나라의 수산업발전에서 적극 이바지할 유능한 과학기술인재들로 준비해가고있다. - 남포수산업대학에서 -

심금을 울리는 명종포화

김종래전기기관차련합기업소에서

들끓는 전투장은 그대로 불도거나이다.

경애하는 김정원수님의 현직말씀관철로 부르는 방송원의 격동적인 호소와 련합기업소 기동예술선동대원들의 힘있는 휘두르기에 발맞추어 수천명의 종업원들이 손에 붉은기와 구조를 들고 보람찬 생산현장에서 당당히 들어서는 모습은 참으로 장엄이었다.

이들의 앞장에 선 련합기업소 책임일꾼들의 낮익은 얼굴도 보이다.

공작기동에 예술선동대원들의 힘있는 선동속에 오늘도 위풍과 혁신을 약속하며 정다운 일터로 향하는 김종래 전기기관차련합기업소 로동계급의 하루는 이렇게 시작 되었다.

경애하는 김정원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에서 중시하는 대상들에 선전선동력량과 수단을 집중시켜 새로운 비약의 돌파를 지펴올리기를 위한 북소리를 세차게 울려야 합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지난 10월 이곳을 찾으시어 우리 당의 간사하고는 김종래 전기기관차련합기업소에서 당창건 일흔해를 맞으며 우리의 10월을 더 빛나게 하는 훌륭한 선물을 마련하겠다고 못내 기뻐하시면서 새로운 투쟁목표를 제시해주시였다.

창조와 혁신의 기상이 나래치는 곳에는 언제나 대중의 심장에 불길을 지펴주는 힘있는 나팔수들이 있기 마련이다.

당이 제시한 새로운 투쟁 목표를 점령하기 위한 거세한 불길에 새겨져 타는 이 꽃 필기에도 사람들의 심장마다에 불을 달아주는 그런 미더운 나팔수들이 있다.

이른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구두선동, 예술선동과 같은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진행되는 하루 4차이상의 경제선동은 내용이 생동하고 호소성이 강했으므로 하여 커다란 감화력을 불러일으켰다.

이들의 힘있는 경제선동을 볼 때마다 로동자, 기술자들은 격동된 심정을 금치 못하면서 영웅적로동계급으로서의 본분을 다해나갈 결심을 가다듬고있다.

지난 7월 대를 두고 길 이 전할 크나큰 영광을 받은 이들은 청년 2가공직장장 선안준동무는 여성독창 《인정의 세계》를 들을 때 노래의 구절구절이 다

를 떨칠수 있는것은 여기에 바쳐진 중앙예술인경제선동 대원들의 숨은 노력을 떠나 결코 생각할수 없다.

시대정신이 맥박치고 대중의 심금을 울려주는 작품들을 선정하고 그 형상들은 높이기 위해 달리는 배스 안에서 서색과 토른을 거듭하면서 엄습하는 창작전투를 벌여온 이들이었다.

농장원들을 도와 일도 함께 하면서 격심없는 선동활동도 하고 때로는 고열도 몸이 불편한 속에서도 공연을 보장한 경제선동의 나날들은 대중의 심장에 비약의 불길을 지어주는 동시에 시대앞에 진인 자신들의 의무를 더욱 굳게 가 당하게 한 나날이었다.

경제선동의 나날에도 전쟁 로명들의 가정을 찾아 노래도 불러주고 그들의 생활을 친자식의 심정으로 성심성의 돌봐주고 전세대대에 지냈던 높은 정신세계에 자신들을 언제나 비추어보며 투쟁해온 이들이기에 이들이 부르는 노래는 시대의 승결과 박동이 그대로 맥박치는 전투적이며 기백있는 노래로 대중과 호흡을 같이할수 있었다.

대중이 터치는 열렬한 박수 갈채가 드높은 생산적양양에 로 이어지고 자신들이 부르는 한편연환의 노래가 대중의 심장에 불을 지피는 한발한발의 명종포화라는 오직 한형생으로 가슴을 불태운 이들에게 있어서 경제선동의 날과 날들이는 그대로 불비축어지는 전투장들마다에서 필승의 혁명군 가로 인민공용사들의 가슴마다에 승리의 신성과 용명을 안겨주며 전하의 예술인들이 걸던 중군길이었다.

사회주의수호전의 전초선, 사회주의경제강국건설의 수타격명향인 농업전선에서 대중의 심장에 불을 달며 울려 퍼지는 경제선동의 장엄한 노래소리는 배의 혁명정신, 배우의 칼바람정신으로 우리 당 제 7차대회를 전례없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하기 위하여 총동원전에 떨쳐나선 농업근로자들의 자랑스런 승전 포성으로 이어질것이다.

김성민

상원군기동예술선동대원들

상원군안의 일꾼들과 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고무추동하며 상원군기동에 예술선동대원들이 부르는 웅장한 노래소리가 투쟁과 생활의 박동인양 풍요한 대지를 울려 퍼지고있다.

위대한 명도자 김정원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경제선동은 함일 유력대목으로 하여야 합니다.》

상원명에는 곤양에 중요한 과일이 제기될 때마다, 가장 어려운 고비가 나설 때마다 들전전의 나팔수가 되어서 기동예술선동대원들이었다.

조선로동당 제 7차대회 소집에 관한 소식에 접한 그날 기동예술선동대원들의 심장은 현열이 뜨거웠다.

우리가 부르는 노래 한 곡한곡이 그대로 최후승리를 향하여 폭풍쳐 내밀리는 군대의 전진 인민들의 심장마다에 비약의 불길을 일으키는 거센 밀물이 되게 하자.

맞반어나가는 공격정신으로 사상전의 불바람이 세차게 일고온 상상력이 혁명적대고조의 불도거나로 부를 줄을 끊지 하자.

바로 이런 결사의 각오를 가지고 대중의 정신력을 총동 발시키기 위한 대장 리육공

방법론이 있어야 성과가 크다

가천시 준혁리인민병원 일꾼들의 사업에서

나 담당구역이 달라지는 경우 의료일꾼들이 주민들의 건강상태를 일일이 파악하지 않으면 오랜 시간이 걸려야 한다.

원장 김해숙동무는 비롯한 이곳 의료일꾼들은 누구라도 주민들의 건강상태에 대하여 손근 보듯 알고있다.

마을구대를 걸어가다 기침소리를 들으면 누구라도 물어볼수 있을 정도로 환히 꿰고있다.

물론 호담당사들이 주민들속에 들어가 그들의 건강상태를 정상적으로 료해하고있는데도 있었지만 병원일꾼들이 호담당 사업에서는 적지 않은 공백이 남아있게 된다것을 깊이 느끼게 되었다.

리에서 살고있는 모든 주민들의 건강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의료일꾼들의 헌신적일꾼들이고 병원적인 호담당사업에서 새로운 성과들이 이룩되기 시작한 것은 바로 이때부터였다.

병원일꾼들이 잘한것이 바로 젊은 방법론을 찾아내고 호담당 사업을 보다 친밀하게 짜고드는 것이다.

처음 리안의 모든 주민들의 건강상태를 일일이 파악하면 한한이 오랜 의료일꾼들속에서 단 가능하다고 말하는 호담당의 사도 있었다.

그러나 사색과 탐구를 거듭하

아들이 신약에 의한 소화장애가 너무 심해서 이진 소화당의 사선생님이 늘 고려의학적인 방법으로 치료를 해주었다는 농장원의 말에 그만 얼굴을 붉히었다.

주민총화모임때 그 의사는 담당구역의 건강상태를 제때에 파악하지 못한 자신을 비판하였다.

이것은 일꾼들에게도 교훈을 주었다. 사실 병원에 새로 오기

이어서 담당구역주민들의 건강상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고있다.

도록 하였다.

그리고 모든 의료일꾼들이 그에 알맞은 예방대책 및 치료방법들을 내놓도록 하였다.

성과가 컸다. 아직 호담당 사업을 시작하지 않은 것 들어온 의료일꾼이라고 해도 주민들의 건강상태를 사색에 파악할수 있는 좋은 공간이 조성되고 호담당의사호상선 서로 좋은 치료방법을 마련되였다.

약제처방은 또 그들대로 주민들의 수요와 계절에 맞게 여러 가지 효능높은 약물들을 생산하여 리에서 생산되였다.

이곳 병원의 호담당사업이 얼마나 친밀하게 진행되고있는가는 이제 상급병원에 별도로 가지 않아도 된다. 준혁리인민들의 소박한 말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다.

경험은 인민들에 대한 의료봉사사업에서 만족이란 잃을수 없으며 젊은 방법론에 기초하여 의료봉사활동을 부단히 개선해 올리는 바로 이것이다. 호담당의 책임일꾼들이 체계적인 방호속에서 이상적으로 건강보호를 받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 단단 가능성과 맞닿아 있다.

본사기자 김 옥 별

